

10 인터뷰-스포츠 아나운서 노윤주 동문(체육학 2012)



노윤주 아나운서(체육학 2012)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사람도, 관계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정예은 기자)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3, 2, 1, 0, ON AIR” 스포츠 시즌이 다가올 때면 구단뿐만 아니라 방송국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팬들은 스포츠 아나운서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스포츠 현장을 느낀다. 우리신문은 관중과 현장을 잇는 스포츠 아나운서 노윤주(체육대학 2012) 동문을 만났다. 스포츠 전문채널 SPOTV의 간판 아나운서인 노 동문은, 2022년엔 SBS 축구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에 출연하며 ‘운동 잘하는 아나운서’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노 동문의 스포츠에 대한 진심은 누구보다 남다르다.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노 동문을 만나, 그녀의 발자취와 현재를 들어봤다.

열정으로 태어난 스포츠 DNA

“남자애들이 점심 먹고 공 차려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부러울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어요” 부모님 덕에 노 동문은 일찍이 스포츠를 접했다. 초등학교 때 농구를 배우고 육상선수로 활동하는 등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스포츠와 함께 보냈다. 한 때 운동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그의 꿈은 스포츠 아나운서였다.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꿈은 경희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 재학 중이던 노 동문은 스포츠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대학으로의 편

입을 계획했다. 그의 선택은 경희였다. “체육대학 중에서는 경희대가 제일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체육대학이라고 하면 ‘경희대’라 생각해 지방 후 (경희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대학생활에서도 스포츠는 빼놓을 수 없었다. 노 동문은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농구 대회 장내 아나운서, 유소년 축구대회 인터뷰 등 직접 발로 뛰며 기회를 찾았다. 그는 그렇게 다양한 실천 경험을 쌓아 나갔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노윤주 아나운서를 있게 해줬다. “아기들 인터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아기들이랑 인터뷰하는 걸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된 지금도 여전히 운동 마니아다. ‘전생애 운동선수가 아니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 스포츠를 즐기는 노 동문은 시간이 흘러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며 운동도 잘하는 아나운서임을 입증했다.

준비된 ‘1호’의 아이콘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리고 첫 시작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노 동문은 달랐다. “제가 처음에 강한가 봐요”라는 노 동문의 말처럼 그는 ‘준비된 1호’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아나운서였다.

시작은 일본 유학 시절 참가했던 ‘미스코리아’부터였다. 노 동문은

2012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일본 진에 입상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받은 자극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미스코리아의 경험은 아나운서를 향한 그의 원동력이 됐다. 노 동문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했던 선배 아나운서들의 성공을 보며 의지를 다졌고 본격적으로 편입을 결심했다.

‘1호’의 경험은 ‘제1회 우지원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장내 아나운서로 이어졌다. 헬스장에서 우지원 선수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기회였다. 노 동문은 용기를 내 우지원 선수에게 자신을 스포츠 아나운서 지망생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때마침 처음 개최된 농구대회부터 3년간 진행을 맡게 됐다.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등록한 SPOTV 아카데미에서도 1호의 주인공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은 늦은 나이가 아닐까 싶어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노 동문은 끝까지 도전했다. 무조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결국 2018년 K리그 리포터를 뽑는 오디션에 합격했고, SPOTV 아카데미가 배출한 1호 아나운서가 됐다. “저는 당연히 제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가능케 했던 그의 준비 덕이었다.

좋은 사람, 좋은 인연, 좋은 기회

인복이 많은 노 동문은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주변에서 많은 기

회를 연결해 줬다는 노 동문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사람도, 관계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경력도 경력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외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라고 강조했다.

노 동문은 항상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 “전 뭐든 감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아나운서 지망생 서류멘타리를 찍게 됐을 때, 노 동문은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촬영에 임했다.

성실함이 좋은 인연과 기회로 돌아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서류멘타리를 계기로 KBS 아침 방송의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노 동문은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노 동문은 한 연에 프로그램에서 6개월간 리포터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작은 회사에 소속돼 행사를 다니며 리포팅을 하기도 했다.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다. 노 동문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여기서 비롯된 그의 열정과 성실함이 아닐까.

직접 뛰는 스포츠 아나운서

스포츠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

는 아나운서는 많지만, 직접 필드를 뛰는 아나운서는 흔치 않다. 노 동문은 필드에서 발로 뛰는 아나운서다.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꿀 때부터 ‘운동도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자 했던 그는 이를 스스로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필드 밖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과 직접 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남들과 달리 스포츠를 잘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인터뷰할 때 종목을 이해하고, 하나라도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노 동문은 말한다. 직접 경기를 뛰으로써 그는 프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뒤에 숨겨진 노력과 아픔도 볼 수 있었다. 프로선수에 대한 이해와 존경도 더해졌다. 노 동문은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팬을 생생한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물음에 노 동문은 “골프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요즘 골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골프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골프 쪽에서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유튜브나 행사도 오래 하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라는 노 동문의 인생의 모토를 엿볼 수 있었다.

스포츠 아나운서하면 생각나는 사람, 노 동문은 ‘노윤주 아나운서’ 본인의 이름이 떠오르길 바랐다.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고보다는 스포츠 아나운서 하면 노윤주라는 사람이 있다, 스포츠를 잘하고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노 동문은 누구보다 스포츠에 진심이고자 했다.